

## 뒷간과 화장실 미학

# ‘韓國’



글. 이상정  
/우림교역 대표·한화협 이사/

### 한국 요강의 특징

중국의 호자와 일본의 수병에 비해 한국의 요강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호자와 일본의 수병이 남성용이었던 데 반하여 요강은 남녀 공용이었다.

또 호자와 수병이 주전자 모양으로 손잡이가 있고 그 배설구가 위를 향해 좁은데 비해 한국의 요강은 손잡이는 없지만 배설구가 둥글고 넓어서 앉아야 배설하기 편한 여성의 경우와 무릎을 꿇어야 편하게 쓸 수 있는 남자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환자, 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소변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뚜껑이 별도로 있어 악취와 배설물을 차단할 수도 있으니 중국의 변기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자와 수병은 뚜껑도 따로 없이 하나의 그릇으로 되어 있다. 남자의 소변 전용이라는 단일 용도도 불편하지만 중국의 호자같은 것은 변기 바닥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하에 있었으면서도 그 문화를 독자적으로 소화해서 발전시켰다.

요강의 재질은 그 집안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청동제는 견고하고 값이 비쌌으므로 귀족이나 부호

의 가정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도자기는 주로 일반 서민 가정에서 이용되었다.

정확한 연대는 추정하기 힘들지만 놋요강이 공급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초기에는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소위 '밤짜 요강'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들은 쇠의 질이 좋아서 녹이 잘 안스는 견고한 것으로 차츰 가내 공업 수준을 벗어나 발전했다.

당시 육이라 칭송되던 청자와 백자의 요강은 상류층 가정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후기 백자에는 이 요강에 여러 가지 꽃 무늬를 넣어 멋을 부렸다.

우리 나라에서 뒷간을 주거와 되도록 멀리 둘 수 있었던 것은 요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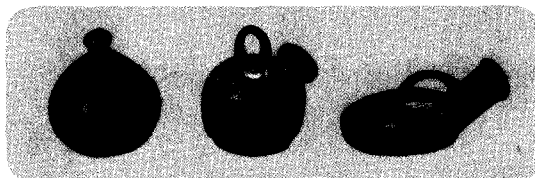
상류와 하류층 할 것 없이 요강은 생활의 필수품이었으며 혼수품에도 놋요강과 놋대야를 첫째로 꼽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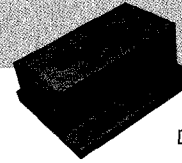
생필품이었던 요강은 비우고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봉건시대, 많은 식솔을 거느리고 날마다 손님을 접대해야 했던 상류층 대가에서는 청지기가 요강을 맡거나 '요강 담사리'라는 머슴을 따로 두어 요강 비우는 일을 맡겼다.

일반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요강의 오줌을 뒷간에 버리고 우물거나 집안 개울에서 깨끗이 씻었는데 쪼

### ○ 일본의 수병





매화그릇



매화틀

을 구겨 수세미 대용으로 삼고 비누 대신 입기와 가루를 묻혀 닦요강을 닦았다.

## 궁중의 칫간과 변기

우리나라의 궁중에서 사용했던 칫간에 대한 문헌은 아직 이렇다 하게 발견된 것이 없다.

현존하는 고궁의 설계도를 보아도 칫간은 없고 다만, 창덕궁 대조전에서 회랑으로 연결된 경운각 뒷편에서 유일하게 칫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경운각의 모난 뒷간은 당시의 욕실이고 그 옆의 작은 칸이 칫간으로 쓰였다고 추측되는데 마루에는 배설구로 보이는 긴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다.

마루에서 땅바닥은 약 70센티미터 높이의 공간이고 밖에 있는 문 두짝을 열고 보면 그속에 7센티미터 가량의 네 바퀴(30×70센티미터)가 달린 끌개 한 대가 있다.

끌개 위에는 3센티미터 높이의 철테가 둥글게 박혀 있는데 그 위에 배설물을 담은 그릇을 얹어 두었다가 밖으로 끌어내는 데 쓰여진 유물같이 생각된다.

대조전은 태종 5년(1405년)에 창건하여 임진왜란 전후에 소실되어 중건되었다.

그러나 1917년 다시 불이 나서 1920년에는 경복궁 교태전을 그곳에 옮겨 개축하였다. 서양식 쪽마루와 유리창 등 현대식 건축법을 도입한 개화기의 것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다만 여러개의 방과 구석에 욕실과 칫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궁인들이 거쳐하던 곳으로 짐작될 뿐이다.

### 매화틀

화려하고 웅장하기로 이름난 17세기 베르사이유 궁전에만 궁인들의 화장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궁중 역시 궁신과 각급 궁인들의 칫간은 따로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원 으스스한 곳에 사대부집을 본따서 지은 연결당 행랑채, 마룻간 구석에 남아 있는 유일한 칫간이 제한된 수준의 사람만 쓰던 것으로 보이지만 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궁중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예의를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던 시대였으므로 궁중에서 방뇨했을 리는 없다고 믿어지기에 어떤 형태이든 대소변을 보던 장소는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감의 생활 주변에 칫간을 아예 없애야 할 이유로, 첫째는 사가와 같은 방식의 위생 시설을 궁중에 설치한다는 것은 왕의 절대 권위에 손상이 된다는 점과 칫간의 위생적인 처리방안이 어려므로 당시 기술로는 미흡했기 때문에 배설물을 즉시 땅에 묻거나 없애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칫간은 없어도 변을 보는 그릇 또는 틀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선 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매화틀(매우틀)'과 '매화그릇(매우그릇)'이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들은 창덕궁 대조전 경운각에서 발견되었다. 매화틀은 높이가 21센티미터, 너비가 39.5센티미터, 길이가 48.3센티미터 정도되는 목재로 윗면은 장방형이며, 가운데 역시 장방형의 구멍이 파져있다. 또, 외곽은 엽문주단으로 폭신하게 입혀져 있고 아랫부분 양 옆에는 발판이 있고 이 역시 엽문 주단으로 입혀져 있다.

이중 한쪽은 막혀 있지만 다른 한쪽은 터져있다. 터진 면으로는 변을 받는 '청동제 매화그릇'을 넣고 빼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틀의 규격이 작아 때문에 어린 왕자들이 쓰던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청동제 매화그릇은 현존하는 매화틀에 맞는 것이 아니다.



## 뒷간과 화장실 미학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국 문화권의 흥미로운 특징을 살펴면서 화장실 밖의 문화까지 개관하여 미래의 화장실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존하는 매화그릇은 큰 어른용으로 높이 12센티미터, 넓이 22.5센티미터, 길이 49.5센티미터의 선형으로 되어 있다. 매화를 곁에 입혀진 주단의 무늬나, 직조와 나무를 접합시킬때 쓰인 핀의 모양으로 볼때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동제 매화그릇은 부식 상태가 꽤 심한 것으로 보아 훨씬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적으로 남아 있는 왕궁의 매화틀에 앞서 다른 매화틀이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역대의 부유했던 상류층에서도 이런 형태의 변기를 모방하기도 하였는데 강릉의 선교장에 보존되어 있는 변기는 궁중의 매화틀과 매우 흡사하다.

이 변기가 매화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다가 없다는 것인데 배변후 틀을 들어내고 받침그릇을 처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민속학자 김광연 교수에 의하면 궁중에서는 매화틀을 담당하는 '복이나인(지밀나인)'이 있어 매화그릇에 '매추'라는 잘게 썰은 여물을 담아 틀 안에 넣어 두었다가 귀인이 쓰고난 다음 여물을 다시 덮고 그릇을 빼내어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 왕가의 의자식 변기와 매우 유사한 처리 방법이다.

왕이 쓰던 매화틀은 모두 세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침전에, 그리고 정사를 보는 곳과 신하를 만나는 곳에 하나씩 있었다고 하며 왕비나 왕대비는 각각 두개씩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 길요강

매화틀을 이용하면 대소변 모두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요강 같은 간편한 변기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가에서도 작은 요강을 바지속에 넣고 소변을 보았는데 하물며 입금이나 왕비가 겹겹의 아래옷을 다 벗어야 앉을 수 있는 매화틀에서 소변까지 보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조백관과 군병들의 응위를 받으며 장거리를 행차하던 어가 속에서 상감의 생리적 현상은 역시 요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마속에서 얼굴을 보일 수 없었던 왕비나 이에 버금가는 궁중의 귀인들 역시 요강 같은 그릇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 정확한 사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김광연 교수의 <한국민속지>를 보면 일반 사가에서는 옛날 '길요강'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루 이용되었다고 하니 상감의 행차에까지 이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다.

<계속...>